

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지속성장 방안

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

(사)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사무국

□ 배경 및 목적

- 전 세계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이 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자 미래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주목받고 있음
- 초기 스타트업이 본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, 네트워크, 시장 연결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가 긴밀하게 작동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액셀러레이터(AC)와 초기 투자자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
- 그러나 국내 초기 투자 시장은 여전히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 높아 구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창업생태계 정책과 제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
- 이번 정책토론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 생태계를 점검하고, 액셀러레이터 및 초기 창업 투자자 등 주요 투자 주체들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며, 이들의 자생적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함
- 특히, 민간투자 활성화,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정립,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과 투자 회수 구조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,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함

창업생태계 초기 영역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창업국가로 가는 핵심 열쇠.

**초기 투자자 . 액셀러레이터가 살아야 스타트업이 자라고,
스타트업이 자라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.**

□ 토론회 개요

- (행사명)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지속성장 방안 정책토론회
- (일시) 2025년 4월 17일(목), 14:00~16:00
- (장소)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
- (공동주최) 박지혜 의원실, 김동아 의원실,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
- (참가자) 초기 투자업계 관계자 및 창업생태계 유관기관 등 50명 내외
- (발제) 학계 및 업계 전문가
 - ①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내 액셀러레이터 가치와 효과
 - ② 대한민국 액셀러레이터 도입의 역사와 변화, 오늘의 사회적 의미
- (패널토론) 국내 액셀러레이터 지속성장 방안 모색과 창업투자 생태계 회복으로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
 - 패널: 박지혜 국회의원, 김동아 국회의원, 협회장 및 교수 등 6명

[세부 일정]

구 분		주요 내용	비 고
14:00~14:05	5'	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	KAIA
14:05~14:15	10'	인사말씀	협회장/국회의원
14:15~14:20	5'	단체촬영	패널 및 발제자
14:20~14:40	20'	(발제1) 액셀러레이터 가치와 효과	교수
14:40~15:00	20'	(발제2) 액셀러레이터 도입 역사와 변화, 의미	액셀러레이터
15:00~15:40	40'	토론회(이슈점검과 성장방향 모색)	토론자 6인
15:40~15:55	15'	참가자 질의응답 및 오픈마이크	참석자
15:55~16:00	5'	폐회	

[패널/참석자]

No.	참가자	주요약력	역할
1	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제22대 국회의원 •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• 前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• 前 SK텔레콤 사회책임경영 	토론
2	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제22대 국회의원 •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• 前 법률사무소 온길 대표변호사 • 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	토론
3	초기투자액셀 러레이터협회 전화성 협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협회장 • 現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• 現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(17~) • KAIST 전자전산학과 	토론
4	벤처스퀘어 명승은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• 前 티엔엠미디어 공동대표 • 前 매경인터넷 멀티미디어전략 기자 •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	발제 및 토론
5	빅뱅엔젤스 황병선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이사 • 現 아카데미엑스 대표 교수 • 前 LG전자 MC사업부 부장 • 前 에이전트리더 대표 	토론
6	동국대학교 성창수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교수 • 기업가정신교육 우수 장관상(2017) • 저서: - '꼭 알아야 할 기술사업화 바이블' - '세상을 바꾸는 기술창업 전략' 	발제 및 토론

□ 업계 주요 쟁점/이슈

□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생태계 중요성과 차별점

1) 초기 창업기업(시드 단계) 대한 투자 및 육성

- 스타트업에 대한 사업모델 검증, 네트워킹, 피칭, 멘토링 등 전방위적 지원
- 정부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운영 파트너로서의 역할(예: 팁스, 창업패키지 사업 등)
- 초기 스타트업과 후속 투자자(VC), 기업, 정부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

2) 생태계 내 독립적이며 중요한 접점

- '아이디어 → 제품화 → 시장검증 → 투자연계'라는 창업 여정의 초반부 담당
- 대학, 연구기관, 청년창업, 지역혁신 등 다양한 창업의 '기화점' 역할을 수행
- VC, 정부, 대기업 CVC 등과는 상호보완적 관계임에도, 실질적 투자 영향력 완만

① 제도적 위상과 정의의 모호성

- 벤처법에 따라 '액셀러레이터'는 벤처투자 기능을 갖춘 전문회사로 정의되나 모태펀드 등에서의 투자 주체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함
- 이에 투자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VC(벤처투자회사)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, 금융시장 관계 주체들에서의 시선도 취약함

② 자본력의 구조적 열세

- 액셀러레이터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며, 투자 여력이 VC에 비해 현저히 낮음 → 시드투자 단위는 보통 0.5~3억원 수준으로 제한
- 이에, 고정비용 충당 위해 대부분 정부지원사업(운영비, 보육비, 매칭 투자금 등)에 의존적인 비즈니스 모델

⇒ (문제점) 민간투자 유치 및 펀드 결성 역량 제한적, 민간 자생력 취약

③ 회수(Exit) 구조의 부재

- VC는 펀드를 통해 일정 기간 후 투자 회수를 설계할 수 있으나, 액셀러레이터는 회수 기반이 불명확하거나 비정기적이고 수동적
- IPO나 M&A가 일어나는 시리즈 B 이후 단계에 접근이 어려우며 이는, 회수 전략 부재 → 투자 확대 제한 → 생태계의 선순환 단절로 나타남

④ 역할 대비 낮은 보상 구조

- 창업지원사업 운영사로 활동하면서도 정부 위탁사업 성격에 종속 → 창업 기업 선정, 사업 관리, 성과 관리 등 업무 부담이 큼
 - 반면, 수익모델은 투자 회수나 소액 운영비에 의존하며, 자체 전문성 기반한 영리 비즈니스 병행 시 창업육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자체적 지속가능 수익모델 부재
- ⇒ (결과) 전문성 있는 인력 유입 저해, 내부 역량 강화 투자 어려움. 이로 인해 적정 규모화 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

⑤ 스타트업-VC 간 연결 부족의 구조적 원인

- 액셀러레이터는 VC로 가기 전 단계 역할을 맡지만, VC와의 유기적 투자 파이프라인(후속 투자 연계)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음
- 많은 스타트업이 ‘시드 이후 데스밸리(Death Valley)’에 빠짐 → 액셀러레이터가 중간에서 끊어지는 생태계 허리로 존재

⑥ 공공사업 의존도와 시장 독립성 부족

- 액셀러레이터 주요 수익은 정부 주도의 보육·지원사업 운영비에 집중 → 민간 자율성과 혁신 역량 위축되며, 이는 지원사업 성과 지표 위주의 운영이 되기 쉬움

⑦ 지방 및 지역 생태계 내 고립

- 수도권 중심 투자와 스타트업 집중 현상 속에서, 지역 액셀러레이터는 더욱 열악한 투자 환경 → 창업 인재 확보, 민간 투자자 연계, 사업화 인프라 모두 제한
-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형 액셀러레이터를 앞세우나, 공신력, 인프라, 재원 갖춘 공공형 기관들의 영역 확대로 전문성 기반한 액셀러레이터와의 충돌 및 민간 입지 위축이 지속됨

□ 토론회 방향

- (규제 완화를 통한 초기 창업생태계 활성화)
 - 투자의무비율 완화, 경영지배형 투자 허용, 자율규칙 기반 조합결성 등 창업 기획과 보육, 투자의 전문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자율적 규제
- (벤처투자회사(VC)와는 다른 가치를 지닌 존재)
 - 액셀러레이터 법적 위상 강화: VC와 유사한 벤처투자 주체이면서, 창업 보육 및 육성의 전문성 지닌 특별한 전문 집단으로 정의 및 제도정비
 - 전문인력 유입 지원: 초기 투자 및 보육 전문가, 창업 코치의 전문직 업권화 및 전문인재 양성, 커리어 성장-관리 체계 설계
- (투자 마중물 확보와 회수를 통한 선순환)
 - 모태펀드 초기 창업부문 비중 확대: 창업초기 소형펀드 부문 확대와 액셀러레이터 루키리그, 보육/육성 전문 펀드 등의 도입
 - 회수 및 선순환 구조 다변화: 민간 세컨더리 펀드 조성, 액셀러레이터 -VC 간 공동운용 펀드 또는 공동 심사 체계 구축 등